

포스트휴머니즘 시대 영유아교육 분야에 적용된 들뢰즈(Deleuze)의 신체(body) 개념에 대한 이해

김현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윤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및 창의융합연구소 소장¹⁾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휴먼의 패러다임이 삶의 관점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들뢰즈의 관점 중 신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들뢰즈의 저서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신체 개념, 신체의 역량, 신체와 사유를 탐구하였고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 분야에 제시하고자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물들의 운동과 정지의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면, 영유아는 지금보다 더 미지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신체에 일어나는 일을 적합하게 알려면 그들의 행위에 귀 기울이고 신체의 각각이 내뿜는 고유한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체가 역량이라는 들뢰즈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유아는 그 순간의 바로 그 되기를 통해 자신과 관계 맺은 특정 신체에 대한 이해를 쌓아간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영유아가 경험하는 순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체적 경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들뢰즈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외부 사물에 반응하는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들과 신체적으로 만나면서 겪는 경험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영유아의 감각적 행위, 실험, 놀이는 이미 사유 그 자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들뢰즈의 관점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영유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의 교육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주어 오고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기발하게 현장의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다가오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구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들뢰즈 관점의 이해해 맞춘 논의 역시 이루어져 나가길 기대한다.

키워드

들뢰즈, 들뢰즈의 신체, 포스트휴머니즘, 영유아교육

Manuscript received April 15, 2023 / Revision received June 2, 2023 / Accepted June 28, 2023

1) 교신저자: eunjuyun@sookmyug.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1. 들어가는 말

현대의 사상가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상가인 들뢰즈(Deleuze)는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관심을 받고 있다(조남규, 배은주, 2018). 『차이와 반복』, 『시네마1, 2』, 『프루스트와 기호들』, 『천개의 고원』, 『감각의 논리』, 『안티 오이디푸스』 등 들뢰즈 저서의 대부분이 번역되었으며, 그의 사상을 해설하는 저서(이정우, 1999; 이진경, 2002; 서동욱, 2002; 신지영, 2008; Villani & Sasso, 2003/2013)들도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목할 점은 들뢰즈의 철학을 논의하는 학문의 분야가 폭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²⁾

들뢰즈가 관심을 보였던 철학, 문학, 영화 등 외에 여러 분야에서 그의 사상을 수용하고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교육 분야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제도적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송혜린, 노상우, 2014), ‘어린이(children)’에 대해 언급한 문구(Hickey-Moody, 2013)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교육이 들뢰즈의 주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교육 분야에서 들뢰즈의 사상을 접목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배경은 시대적 변화와 인간 생애에서 영유아가 가지는 독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상위포식자로서의 인간 위치가 무너지면서 인류세(anthropocene), 4차 산업혁명 등의 현란한 수사(정연보, 2022)와 함께 포스트휴머니즘의 패러다임이 삶의 관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영유아교육 분야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서 패러다임과 분리될 수 없는데, 특히,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사이를 넘나드는 포스트휴먼의 특성이 영유아가 세상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 그 자체(Murris, 2016/2021)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보다 더 신속하게 포스트휴먼의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온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정식으로 영유아교육 분야에 소개된 시기는 2017년 한국영유아교육학회 제9차 국제학술대회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들뢰즈와 가타리를 통해 유아교육 읽기』(Olsson 2009/2017),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 ‘이기’와 ‘되기’』(Davies, 2014/2017), 『들뢰즈와 내부작용 유아교육』(Taguchi, 2010/2018), 『어린이의 교육과정 되기』(Sellers, 2013/2018) 등이 연이어 번역되어 국내에 출판되면서 영유아교육 분야가 다른 학교 급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포스트휴머니즘의 흐름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물질들 속에서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이 자유로운 유아의 특성과 이를 환영하는 유아교육의 특수성(강승지 외, 2018)은 포스트휴먼이 영유아교육 분야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었다.

위에 소개된 저서들은 포스트휴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서적으로

2) 2023년 6월 5일 기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의 국내학술논문 분야에서 ‘들뢰즈’로 검색하면 2,026 건이 검색된다. 이들을 주제 분류로 살펴보면, 인문학 1,110건, 사회과학 214건, 예술체육 398건, 교육 165건, 공학 363건, 복합학 72건, 자연과학 23건, 의약학 15건, 농수해양 4건, 기타 51건으로 나뉜다.

간주되는데, 이 저서들에서는 영유아를 내부작용(intra-action)하는 존재, 되기(becoming)의 존재로 바라보며 영유아를 포함한 물질의 행위주체성을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내부작용하는 존재란 모든 생물체, 자연, 담론을 포함한 범위를 물질로 바라보며 이들 활동 사이에 작동하는 분리될 수 없는 얽힌 관계들이 체화되는 것(Sellers, 2013/2018)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했던 인간 개개인마저 “뒤엉킨 개체들의 공동 구성”(Barad, 2007)이 되는 것이다. 되기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영유아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경되는 주체 시스템으로 바라보며, 항상 이미 지속적으로 흘러가며 변화를 반복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또한 물질의 행위주체성이란 현실을 바꾸고 개조하는 적극적인 힘(Taguchi, 2010/2018)으로써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존재를 물질로 통합하며 양측 모두를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지속적인 힘의 흐름과 강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관은 들뢰즈 철학에 영감을 받은 국내 연구(강주희, 이진화, 2021; 고은경, 윤은주, 2018; 김윤미, 2019; 김태경, 2019; 김혜련, 2022; 반미령, 이경화, 2018; 서민주, 임부연, 2017; 이조은, 2018; 이진희, 신은미, 2019)³⁾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내부작용하는 존재, 되기의 존재로서 영유아를 보여주기 위해 영유아의 외부에 있는 물질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사례로 제시하는데, 사례 속 유아들은 자연물, 그림책, 카메라 등의 물건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이미 인간발달에서 영유아의 시기는 비인간들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다(김태경, 2019)고 바라보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자 영유아교육 분야의 합의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되기, 행위주체자, 내부작용 등이 ‘새롭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영유아교육의 재개념화가 활발히 진행된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의 패러다임에서의 대표적인 교수학습방법인 프로젝트 접근법,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 등은 영유아들이 다양한 매체들을 감각적으로 접하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생성해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즉, 영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들은 신체를 기반으로 감각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이미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뢰즈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휴머니즘의 ‘새로운’ 개념들이 새롭게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들뢰즈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들뢰즈 철학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감각적 경험에 중점을 두는 영유아기의 특성과 이를 중시하는 영유아보육교육분야의 관점을 고려할 때 들뢰즈의 개념 중 특히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의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들뢰즈의 관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영감을 받아 해석되고 있는 신체에

3) 2023년 6월 5일 기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의 국내학술논문 분야에서 ‘들뢰즈’로 검색한 2,026 건 중 주제분류상 교육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는 165건이다. 이들 중 영유아보육교육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은 59건이다. 이들 논문은 들뢰즈의 관점으로 교사 교육, 영유아교육철학, 교수학습방법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논문을 살펴본 후 연구에서 중점을 둔 아동에 대한 시각을 다루고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대한 들뢰즈 관점의 적용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들뢰즈(Deleuze)의 신체론

2.1. 신체의 개념

몸체는 몸체다. 몸체는 혼자이다. 또한 기관들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몸체는 결코 유기체가 아니다. 유기체는 몸체의 적이다.

(Deleuze & Guattari, 1980/2001, p. 304-305)

들뢰즈는 17세기 철학자인 스피노자로부터 영감받은 신체 개념을 자신의 철학에서 발전시킨다. 여기서 신체(body)란 인간의 유기체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문 body 는 신체, 몸, 몸체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때 몸이란 모든 종류의 몸, 예를 들어 동물, 소리의 몸, 마음이나 생각, 말뭉치, 사회의 몸 또는 집단의 몸, 그리고 인간의 몸 등을 포함한다. 들뢰즈가 해석한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체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부분들의 조직’(신승철, 2005)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육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완성된 몸체로 보이는 육신일지라도 이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 하나하나 역시 무수히 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자는 더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가장 단순한 물질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결합하면서 점점 더 큰 개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합성된 개체로서의 인간 육신은 또 다시 섭취하는 음식, 들이마시는 공기 등과 합성하며 지구라는 더 큰 신체를 합성한다.

들뢰즈는 ‘사람들은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인간의 의식, 의지 등 신체를 움직이고 지배한다고 간주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즉 인간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복합체인 나의 육신의 상태에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에 한정하여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마치 신체와 무관하게 정신의 영역에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적합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 몸에서 매일 생성되고 소멸되는 세포들의 탄생과 죽음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유미와 림프가 그들 각자의 관계들을 합성하여, 제3의 관계 아래서 피를 형성하는 것(Deleuze, 1969/2022)을 볼 수 없다.

이는 신체의 개념을 인간의 육신과 같은 유형을 넘어선 개념으로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국가라는 신체가 있다고 할 때, 국가는 물체적(corporeal)인 영토, 국민, 영해 등과 비물체적인(incorporeal) 정치이념, 법 체계 등의 개체들이 결합된 복합체이다(경혜영, 2019). 인간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 역시 인간의 육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정신이 표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신체에 ‘일어나는 것’만을 즉, 우리의 신체에 미친 한 신체의 결과만을

받아들이게 된다(Deleuze, 1981/2020).

다음으로 신체는 경계가 뚜렷한 고정적인 형태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Sara Ahmen 와 Jackie Stacey(2001)는 피부는 몸의 경계가 아니라 개입(interference)의 영역으로 바라보며, Barad 역시 Feynman 을 관점을 바탕으로 몸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심리적 믿음의 오해라고 말한다(Taguchi, 2010/2018). 버섯을 먹고 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키(length)의 운동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육안으로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키는 아침, 점심, 저녁의 측정치가 동일하지 않다. 하루라는 시간 내에서도 세포들의 결합 질서에 따라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이다.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매끼 섭취한 음식물과 그를 소화 및 흡수시키는 내 신체, 가령 치아의 저작 활동, 식도와 위의 운동 등과의 관계에 따라 결합 혹은 해체 관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신체, 한 신체의 개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사이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들, 빠름과 느림의 관계들이 된다(Deleuze, 1981/2020). 다시 말해, 모든 신체는 형태(form)가 아닌 운동과 정지의 질서 속에서 변형되는 자기변신적인(이찬웅, 2017) 개별성의 복잡한 집합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미세하여 육안으로 포착할 수 없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특정한 누군가를 ‘그’라고 말할 수 있는 형상(figure)을 감각하고 표상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부분들의 관계는 한 인간 개체라는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어 그 신체의 존재하는 힘, 영향을 받는 힘과 동일한 물리적 강도의 정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의 힘에 상응하는 특징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때 몸이 존재한다(Parr, 2010).

2.2. 신체의 역량

스피노자는 끊임없이 몸체에 놀랍니다. 몸체를 갖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몸체가 할 수 있는 것에 놀라지요. 몸체는 그 종이나 속, 그 기관들과 기능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체가 할 수 있는 일, 능동적으로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도 몸체가 감당할 수 있는 변용태들에 의해 정의됩니다.

(Deleuze & Parnet, 1977/2021, p. 115)

그렇다면 신체는 왜 관계를 맺게 되는가. 들뢰즈에 의하면 스피노자는 각 신체를 형태가 아닌 힘 즉, 실체인 신으로부터 분유된 역량으로 바라본다. 들뢰즈에 의하면, 신체란 생물학적인 형태나 종, 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바로 신체의 존재가 된다. 결국 신체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힘이라는 역량에 귀결된다(Davies, 2014/2017).

한 신체를 그것의 기관들이나 기능이 아닌 변용시키고 변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스피노자의 철학』(Deleuze, 1981/2020)에 나온 예에서 설명될 수 있다. 노역하는 말, 경주마, 노역하는 소를 비교한다면 동일한 변용들과 변용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노역하는 말과 노역하는 소가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이 표현되는 방식과 맺는 관계들이 유사한 것이다. 결국 생물학적

형태나 종, 유(類)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바로 그 사물의 존재인 것이고 존재들 사이의 차이는 결국 역량의 차이인 것이다.

양태로서 인간의 역량은 신의 작용능력으로부터 분유받은 능동적 변용능력과, 수동적 변용능력으로 구성된다. 양태는 신에 의해 생산된 소산적 자연으로 존재의 원인이 자신의 외부에 즉,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신에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용을 받아 태어난 존재이다. 인간을 예로 보더라도, 인간은 부모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통해 즉, 그들의 결합이라는 작용을 받아 잉태되고 출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태는 태생적으로 신으로부터 분유된 능동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신체의 역량은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는가, 즉, 그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의 복합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은 개미보다 더 많은 부분들로, 더 많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미보다 더 큰 역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신체의 역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 후천적 노력으로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그를 구성하고 있는 능동과 수동의 역량의 비율은 후천적 경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인간은 본유적으로 자신의 현상상태의 신체를 지속하려는 힘 즉, 코나투스(Conatus)를 가지고 있다. 이 코나투스는 실체로부터 분유된 나의 역량으로서 나름대로 구성된 완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스스로를 실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코나투스는 신체적으로 내가 겪는 것에 따라 생기는 감정에 따라 변용되는데, 나와 합치하는 신체와 결합되면 기쁨을 느껴 그것을 더 찾으려는 능동적 역량을 발휘한다. 반면, 나를 해체하는 나에게 나쁜 것과 결합하게 되면 슬픔을 느끼고 그를 겪게 되는 수동적 역량이 발휘된다.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나에게 유용한 것과 마주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능동과 수동의 역량은 동시다발적 혹은 불특정한 비율로 나의 역량을 구성하게 되는데 능동적 역량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더 적합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스피노자에게 영감을 받은 들뢰즈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는 고정된 형태를 가진 기능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과 수동의 역량으로 구성된 부분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2.3. 신체와 사유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는 인간의 이성을 신체보다 우월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로부터 출발한 이성중심주의는 인간이 인식한다는 것을 정신의 영역에 묶어놓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경험은 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들뢰즈는 인간의 정신, 의식, 의지를 지배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사유에서 신체의 위치를 전복시킨다. 들뢰즈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신체가 무엇을 만나 어떤 작용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인간인 우리는 내가 부딪혀 만나는 모든 것, 즉 기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라는 범위 안에 한정되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발적인 마주침을 제어할 수도 없다.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측하지 못한 만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고, 인간인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프루스트의 작품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속 주인공 마르셀은 겨울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원하는 따뜻한 차 한잔과 마들렌을 먹는 경험으로 콩브레 시절 고모의 방에서 맛보았던 마들렌의 추억을 떠올린다(Deleuze, 1976/1997). 여기서도 마르셀이 경험하는 것 즉, 겪는 것은 신체가 하는 일이다. 신체가 겪은 후 이에 상응하는 관념이 생긴다. 즉, 관념은 신체 변용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정신에 그려지는 표상은 신체의 겪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여겨지는 개념들조차 다 물질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들뢰즈에게 사유는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체의 경험 이후 정신에 의해 그 경험이 판단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3. 들뢰즈 신체 개념의 시사점

근대를 지나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에서 만든 영유아의 이미지는 ‘불완전하고, 항상 길에 있고, 발달하는 것을 결코 끝내지 못한’(Kennedy, 2006, Murriss, 2016/2021 재인용) 상태였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에서 모든 지구거주자들은 상호적으로 얽혀 있으며 내부작용하는 되기(becoming)(Barad, 2007)의 상태들이다. 즉, 이전 패러다임에서 완벽함의 상징이었던 성인 역시 ‘항상-과정-내의-주체(subject-as-always-in-progress)’로 이해되므로 성인들이 만들어놓았던 어린이의 상(想)은 이제 비단 어린이의 것이 아니며 인간 전체의 영역으로 확장되어버린다. 결국 성인과 어린이는 동등한 위치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의 시대를 인지하고 맞이하기 위해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는 발달중인 미숙한 상태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에만 집중하는 오래된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은 영유아가 물질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사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포스트휴머니즘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인간과 물질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무는 것을 조명하여, 각 개체, 그를 구성하는 신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축복으로 인식할 필요성(윤은주, 2018)을 피력한다.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의 연구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감받은 들뢰즈의 관점 특히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들뢰즈가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영유아보육교육분야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신체가 무수히 많은 사물들이 서로 운동과 정지의 질서에 따라 만들어내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영유아는 지금보다 더 미지의 영역으로 인식 되어야할 것이다. 영유아교육의 학자들(안효진, 2018; 임부연, 2017; Eunsook, 2006/2008; Cannella, 1997/2002; Davies,

2014/2017; Olsson, 2009/2017; Taguchi, 2010/2018)은 모더니즘의 산물이자 남자/성인/백인으로 대표되는 이성적 인간이 되지 못한 미성숙하고 발달이 필요한 시기로서 영유아를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피력해왔고, 영유아교육 분야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는 자신이 영유아기를 먼저 겪어왔고, 영유아들보다 지식을 더 소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행동을 즉, 신체가 행하는 것과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신체가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고 확장 혹은 해체되는지, 해체되었다가 다시 결합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극히 일부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유아가 종이에 색연필로 끄적이고 있다면 그것은 글씨에 관심이 있어서 일 수도 있고, 색깔이 매력되었을 수도 있고, 색연필과 종이의 질감이 만나서 전달하는 느낌을 지속시키는 중 일지도 모른다. 이 역시 극히 일부의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은 '이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신체가 하는 일을 급박하게 규정지어버리곤 한다. 우리는 영유아의 신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없다. 성인 혹은 교사인 나의 신체가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영유아는 만나는 신체들과 내부작용(intri-action)(Taguchi, 2010/2018)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합하게 알려면 그들의 행위에 귀기울이고 (Davies, 2014/2017), 영유아의 신체가 각각의 고유한 언어로 내뿜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가 역량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체를 행하는 힘과 겪는 힘으로 바라볼 때, 신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체를 통해서 사유가 일어난다는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되기(becoming)(Sellers, 2013/2018)란 근대이성의 산물로서 완성된 성인이 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인간 육신을 이루는 각 부분들로서의 신체들 혹은 그들의 복합체로서의 육신이 무엇으로 변모할지 알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무엇으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흐름으로서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영유아교육에 적용해서 생각해본다면, 성인과 교사가 영유아를 '되기'의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은 영유아의 순간의 경험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the moment) 영유아가 자신의 외부에 있는 특정 신체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육신을 구성하는 일부분에서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바로 그 되기를 통해 영유아는 자신과 관계 맺은 특정 신체에 대한 이해를 쌓아간다. 비록 그 이해가 적합한 인식과 거리가 멀 수는 있지만, 관계를 맺고 이해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작동하는 영유아의 역량은 비가시적일지언정 발휘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신체적 경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흔히 영유아들을 감각덩어리(서민주, 임부연, 2017)라고 표현한다. 영유아들이 세상의 물질들과 신체적으로 만나면서 겪게 되는 경험으로 세상과 소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유아들이 감각적으로 세상과 소통 능력은 모더니즘에서는 미성숙한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영유아기의 고유성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들뢰즈의 관점에서 이러한 소통 방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사유 그 자체가 된다. 들뢰즈가

해석한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외부 사물에 반응하는 신체의 변용(affectation)에 대한 관념이고, 이 관념은 감응(affect)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감응은 심리적이기만 하거나 신체적이기만 하지 않고 신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 된다(Deleuze, 1969/2022). 예를 들어 털뭉치를 만졌을 때와 못을 만졌을 때 내 신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극받고 변화한다. 그에 따라 나에게서는 털뭉치와 못에 대한 서로 다른 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마주친 나의 외부에 있는 물체가 내 신체를 자극했기 때문에 내 신체가 변용되고, 그 물체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유아는 사유하지 못하는 전이성적 단계가 아니다. 신체는 이성이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 정도가 아니며(송혜린, 노상우, 2016), 이들의 감각적 행위, 실험, 놀이는 이미 사유 그 자체이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 감각적으로 민감하여,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신체가 마주치는 사물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계 맺는다. 그 과정에서 능동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봄으로써 영유아의 행위는 그들의 방식으로 자신이 마주친 기호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김윤미, 2019) 이해해가는 과정이 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우리 시대의 한 가운데 와 있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이미 우리 삶에 와 있는’ 현실이다. UNESCO(2020)에 따르면, 이제는 지구의 미래 생존을 위해 교육을 재구성해야 하는 시기이며 들뢰즈의 관점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영유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의 교육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주어 오고 있다.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들뢰즈의 관점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기발하게 현장의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 현장에 공감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이나 외국의 우수한 사례라고 할지언정 현장에서 그 가치를 깨달아 실행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윤은주 외, 2019)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들뢰즈 관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다가오는 포스트휴먼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구성에 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희, 이진화 (2021).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리좀(rhizome)특성으로 살펴본 유아 상상놀이 경험. *교육과학연구*, 52(2), 104-130.
- 강승지, 이조은, 정혜영, 이연선 (2018). 포스트휴먼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교육적 함의 탐색: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3), 399-421.
- 정혜영 (2019). 브라이도티와 들뢰즈의 물체적 주체: 스토아주의의 물질적 주관성에 기반한 고찰. *한국여성철학*, (31), 109-141. DOI : 10.17316/kfp.2019.05.31.109
- 고은경, 윤은주 (2018). 물질의 행위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유아 숲 체험활동의 비판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 38(3), 195-213. DOI : 10.18023/kjece.2018.38.3.008
- 김윤미 (2019). Deleuze 철학을 바탕으로 영유아와 멀티미디어 내부작용 바라보기. *생애학회지*, 9(2), 47-67. DOI : 10.30528/jolss.2019.9.2.003
- 김태경 (2019). 그림책의 포스트휴먼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 탐색. *유아교육연구*, 39(6), 317-348.
- 김혜련 (2022). 놀이에서 물질과의 내부작용을 통한 유아의 유목적 수학 탐구자 되기(becoming). *생애학회지*, 12(1), 21-43. DOI : 10.30528/jolss.2022.12.1.002
- 반미령, 이경화 (2018). 초록반 아이들의 놀이-되기: 나무동산에서 펼쳐지는 놀이의 의미 해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3(3), 283-303. DOI : 10.20437/KOAECE23-3-12
- 서동욱 (2002). 들뢰즈의 철학: 사상과 그 원천. 민음사.
- 서민주, 임부연 (2017). 들뢰즈의 푸르스트 기호론에 기초한 유아예술교사의 역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793-813. DOI : 10.22251/jlcci.2017.17.17.793
- 송혜린, 노상우 (2014). 노마디즘에 나타난 ‘감응’의 교육. *교육철학연구*, 36(4), 143-164.
- 송혜린, 노상우 (2016).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몸 담론의 교육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30(1), 119-139.
- 신지영 (2008). 들뢰즈로 말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들. 그린비.
- 신승철 (2005). 들뢰즈/가타리의 욕망론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 - 『천개의 고원』 제6장 ‘기관 없는 신체’를 만드는 법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문화*, 1(1), 133-173.
- 안효진 (2018). 들뢰즈와 가타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유아자연친화 교육.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 95-113.
- 윤은주 (2018. 11). Deleuze 차이 생성의 포괄적 유아교육과정: 빈틈과 버팀.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 43-59. 경기: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예음홀.
- 윤은주, 송영선, 김윤미, 김미서, 고은경 (2019). Deleuze의 ‘단절’ 개념에 따른 유아교사들의 교육과정 풀기: 후기 질적 연구를 적용하여. *유아교육연구*, 39(2), 361-384. DOI : 10.18023/kjece.2019.39.2.015
- 이조은 (2018). 유아들의 이야기판에서 물질적 내부작용 들여다보기. *유아교육연구*, 38(6), 319-338. DOI : 10.18023/kjece.2018.38.6.013
- 이진경 (2002). 노마디즘: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휴머니스트.
- 이진희, 신은미 (2019). 들뢰즈의 철학을 통한 프로젝트 다시 읽기: 욕망과 선의 ‘배치’ 분석. *교육혁신연구*, 29(1), 399-421. DOI : 10.21024/pnuedi.29.1.201903.399
- 이정우 (1999). 시물라르크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거름.
- 이찬웅 (2017). 들뢰즈의 신체 개념-결백한 괴물-. *철학*, 130(130), 127-153.
- 임부연 (2017). 포스트휴먼 어린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유아교육학회 소식*, 69, 1-20.
- 정연보 (2022). 기후 위기 시대의 트러블과 함께 하기: 공동생성과 축수적 사고, 생태주의적 돌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22(1), 73-108.
- 조남규, 배은주 (2018). 질 들뢰즈와 무용: 한국무용학의 들뢰즈 수용방식. *한국무용과학회지*, 35(4), 127-142.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 Cannella, G. (1997). *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al justice and revolution*, 유혜령 역(2002). 유아 교육 이론 해체하기. 창지사.
- Davies, B. (2014). *Listening to children being and becoming*, 변윤희, 유혜령, 윤은주, 이경화, 이연선, 임부연 공역(2017).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 '이기'와 '되기'. 창지사.
- Deleuze, G. (1969). *Spinoza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 현영중, 권순모 공역(2022).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그린비
- Deleuze, G. (1976). *Proust et les signes*, 서동욱, 이충민 역 (1997).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 Deleuze, G. (1981). *Spinoza-philosophie pratique*, 박기순 역 (2020).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김재인 역(2001).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2. 새물결.
- Deleuze, G., & Parnet, C. (1977). *Dialogues*, 허희정, 전승화 공역(2021). 디얼로그. 동문선.
- Eunsook, H. (2006). *Teachable moments: Re-conceptualizing curricula understandings*, 손유진, 김남희, 남미경, 정혜영, 이경화, 손원경 공역 (2008).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와 실천. 서현사.
- Hickey-Moody, A. C. (2013). Deleuze's childre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5(3), 272-286. DOI : 10.1080/00131857.2012.741523
- Lenz Taguchi, H. (2010). *Going beyond the theory/practice div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roducing an intra-active pedagogy*, 신은미, 안효진, 유혜령, 윤은주, 이진희, 임부연, 전가일, 한선아, 변윤희 공역 (2018). Deleuze 와 내부작용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구분 넘어서기. 창지사.
- Murris, K. (2016). *The Posthuman child*, 이연선, 변윤희, 손유진, 신은미, 이경화, 한선화 공역 (2021). 포스트 휴먼 어린이: 그림책과 철학하기를 통한 교육적 변화. 살림터.
- Olsson, L. M. (2009). *Movement and experimentation in young children's learning*, 이연선, 이경화, 손유진, 김영연 공역(2017). 들뢰즈와 가타리를 통해 유아교육 읽기. 살림터.
-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 Sellers, M. (2013). *Young children becoming curriculum: Deleuze, Te Whāriki and curricular understandings*, 손유진, 안효진, 유혜령, 윤은주, 이경화, 이연선, 이진희, 임부연, 전가일, 한선아 공역(2018). 어린이의 교육과정 되기: 들뢰즈, 테 파리키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창지사.
- Unesco (2020). *Learning to become with the world: Education for future survival*. Retrieved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32?posInSet=1&queryId=6b85f3f9-c4ea-4510-9fbe-732a2a6f091d>.
- Villani, A., & Sasso, R (Eds.) (2003).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신지영 역(2013). 들뢰즈 개념어 사전: 들뢰즈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87. 갈무리.

Understanding Deleuze's Concept of Body as Appli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Posthumanism

HYUNJU KIM Ph. D. Student,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UNJU YUN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reativity and Converg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body from Deleuze's perspective. Interest regarding Deleuze's perspective is steadily increas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here the posthuman paradigm has become a perspective on life. Deleuze's writings and previous research explored the concept of the body and its capabilities and thoughts. The implications for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at he sought to present are as follows. First, if the body is not fixed, but maintained by the order of movement and stillness of countless objects, young children can be regarded as an even more obscure subject than they are now. Therefore, to accurately learn what is happening to the bodies of you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ir actions and try to understand the unique language that each body speaks. Second, based on Deleuze's perspective that the body is a capacity, young children build up their understanding of the body through their experiences, that is, their moments of "becom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experiences of young childr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ird,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physical experiences is necessary. According to Deleuze, the human mind is the idea of the body's affection in response to external things. Therefore, the sensory actions, experiments, and play of young children, wh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physical encounters with its materials, need to be viewed as thinking itself. Deleuze's perspective has provided inspiration regarding how to view young children and what direction to consider for education in the posthuman era. Based on his work, creative and ingenious applications and interpretations have been ma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is researcher hopes to have a detailed discussion on Deleuze's perspective as well as a structure of education that can respond to the coming era.

Keyword

Deleuze, Deleuze's Concept of Body, Posthumanism, Early Childhood Education